

“연말만 보고 버텼는데”...식당도 호텔도 망연자실

광주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첫 날

“연말만 보고 버텼는데... 거리두기가 격상되는 바람에 대목장사는 이미 끝났네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광주와 전남 등 호남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또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힘든 한 해를 근근히 버텨내면서 연말 단체행사나 대규모 예약 손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식당, 호텔업계는 “코로나 안정세 속에 연말을 보내나 했는데 희망이 사라졌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다.

식당 예약장부 취소 빨간 줄 가득 호텔·레스토랑도 송년회 줄 취소 연말특수 실종 중소기업도 울상

24일 정오에 찾은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한우 전문점은 손님을 손으로 셀 정도로 적었다. 평소 점심시간대면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할 정도로 손님이 많은 유명 식당이지만 이날 만큼은 한산했다.
 식당 주인은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가까운 곳에서 인근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회사원들

을 빼면 찾는 손님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고 했다. 예약 문외도 뜸 끊겼다. 식당 매니저가 보여준 예약장부는 요일별로 빼곡히 적힌 예약명단 위로 그 어진 빨간 줄로 가득했다.
 식당 관계자는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잡혀있던 모든 송년모임 예약이 취소됐다”며 “1단계가 유지됐으면 단체 손님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속상하다”고 말했다.
 인근 장어구이 전문점도 비슷한 상황이다. 방 10개에 200석 규모의 연회장도 갖췄지만 모든 예약이 취소된 상태다. 지난해 이맘때만 해도 12월 예약 절반이 채워졌다고 한다. 식당 관계자는 “저희는 식

당도 커 단체 손님 없이는 운영이 힘든 곳인데, 진짜 이리다 죽겠어요”라며 울먹였다.
 연회장을 갖춘 호텔과 레스토랑들도 대학·기업들의 연말 모임 취소로 운영난에 직면했다며 망연자실해하고 있다.
 자영업자 뿐 아니라 이들에게 관련 물품을 제작, 공급하는 업체들도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다.
 광산구 평동 산업단지 내에서 편백나무를 이용한 제품을 생산 중인 A기업은 비상 경영 상태다.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올해 초부터 경영난은 계속됐지만 연말 특수를 기대하고 있던 탓에 유난히 추운 겨울을 지내야할 상황이다.

매출도 지난해에 견줘 40% 급감했는데, 연말 단체행사가 거리 두기로 사라지다시피해 답례품으로 인기 있는 편백침(나무베개)과 안마봉 등 주문이 끊기면서 연말 특수도 사라졌다.
 A기업 관계자는 “헬스장, 요가학원에서 사용하는 운동기구 제작 주문도 잡업을 하는 사람이 없어 완전히 끊긴 상태”라고 말했다.
 평동산업단지 운영협의회 관계자는 “평동산단 내 600개 입주 업체들은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또 거리두기가 격상되면서 입주업체들도 시름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4일 오전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영광 한빛원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제공)

“한빛원전 부실 용접 정부가 진상조사 나서라”

‘호남권 공동행동’ 기자회견

3호기도 변압기 문제 발생 감발

한빛원전의 부실한 운영 실태 관리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부실 운영에 대한 공개 사과문을 내놓은 지 얼마 안돼 검사 결과를 ‘허위’ 발표한 게 드러나는가 하면, 가동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원전이 문제가 발생해 멈추는 등 불안감이 가시질 않고 있어서다.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24일 오전 영광 한빛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용접 관리·감독 실패에 대한 진상 조사를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한빛 5호기의 경우 원안위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했다”면서 “원안위는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수원은 재발방지를 위해 작업 과정

을 영상으로 녹화하기로 주민들과 약속해놓고도 16곳에 대한 녹화기록 자체가 없다”면서 “한수원은 주민들과의 약속도, 원전 관리 능력도 없는 무능한 집단”이라고 덧붙였다.
 한빛 5호기 뿐 아니라 3호기도 일부 변압기에서 유증기 가스농도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 이날 출력을 낮추는 감발에 들어갔다. 문제의 변압기는 2년 전 교체한 것으로, 원전측은 문제가 발생한 변압기는 2년 전 교체된 변압기인 것으로 80%까지 출력을 낮추고 문제가 계속되면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교체작업은 원자로는 멈추지 않은 상태로 발전만 멈춘 채(1주일 가량) 진행된다는 게 한빛원전 측의 설명이다.
 김중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업국장은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제보에만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제철소 제1고로 공장 산소배관 밸브 폭발 3명 사망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3명이 숨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건 발생 시각을 오후 4시 47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신고 시각은 45분이나 늦은 오후 4시 47분이라는 점에 주목, 대응 과정에서 문제점과 적절성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분께 제철소 내 제 1고로 공장 산소배관용 개폐 밸브가 폭발했다.
 폭발 사고로 발생한 화재는 포스코 측의 자체 진화로 20여 분만에 꺼졌다. 하지만 인근에서 작업중이던 3명의 작업자가 숨졌다. 광양제철은 “산소배관 리크(Leak)에 의한 화재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압가스 취급 중 폭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광양제철측과 공동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가는 한편, 작업 과정에서 관리·감독 소홀, 업무상 부주의 등은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24일 오후 폭발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고로 공장 주변에서 소방관들이 사고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전남도 소방본부 제공)

‘위험한 물건’이란? ...하이힐과 구두의 차이점은

구두로 머리 때려 특수상해 재판 1심선 특수상해죄 적용 징역형 항소심선 상해죄만... 벌금형

하이힐과 굽(5-7cm)이 다소 낮은 여성용 구두의 차이점은 뭘까. 하이힐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일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박현)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여·44)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5-7cm 가량의 힐이 있는 구두를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광양의 한 술집에서 술값

을 내지 않고 나가려다 제지하는 주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손을 물어뜯는가 하면, 신고 있던 ‘하이힐’로 머리를 때려 3주 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혀 ‘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입힌 경우 일반 상해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 통념상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 3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A씨 측은 1심 뿐 아니라 항소심에서도 신고 있던 신발의 경우 “하이힐”이 아니라 굽이 낮은 구두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특수상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신은 신발은 굽 높이가 5-7cm 정도에 아래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의 여성용 구두. 이

구두로 때릴 경우 ‘상대방이나 제3자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게 1심 재판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하이힐’보다 굽이 다소 낮고 굽 끝도 하이힐에 비해 넓은데다, A씨의 구두를 이용한 공격에 피해자가 특별히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도 법정에서 구두로 맞은 부위는 멍 같은 것도 없고 특별한 통증을 느끼거나 치료를 받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반영했다. A씨가 구두로 때린 행위에 피해자가 위험을 느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같은 점을 감안, 원심(징역 8월)을 깨고 상해죄만 적용,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딱 한잔 드셨습니까?

2019년 6월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어
딱 한 잔만 마셔도 처벌되고
단속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이래도 음주운전하시겠습니까?

















